

Th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n Interpretation Bias in Social Anxiety

Su-jin Kim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ation bias and social anxiet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interpretation bias in the relationships among behavioral inhibition, parenting behaviors, and social anxiety. A survey of 377 adults was conducted and it included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ocial Phobia Scale, Korean version of the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and Korean vers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as well as a scenario measuring interpretation bia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terpretation bias showed a fully mediated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Second, interpretation bias showed a fully mediated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social anxiety. Third, a partial mediation model was proposed for a rival model, and the study model for a full mediation model exhibited the best fit with the data.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social anxiety, interpretation bias, behavioral inhibition, parenting behaviors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불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때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불안이란 ‘낯선 사람들 또는 타인들에게 주목받거나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사회불안장애는 특정 공포증과 함께 불안장애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APA, 2013), 평균 발병 연령이 13세로 다른 장애보다 비교적 일찍 발병하여 대부분 만성적으로 지속되기에(Bruce et al., 2005) 학업적, 사회적 및 여타 기능적인 측면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불안의 발달과 유지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혀왔는데, 그 중 인

지적 관점에서 사회불안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은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 잡아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사회불안의 인지적 모형에 따르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정보를 독특하게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에 두 가지 측면에서 편향을 보인다. 하나는 사회적 정보의 정서 또는 위협의 크기에 대한 해석의 편향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이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편향이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모호한 자극이나 상황 또는 과거의 경험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며, 그러한 위협적 사건을 다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Chorpita & Barlow, 1998; Weems & Silverman, 2006).

먼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며, 환경에서의 위협적인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Amir, Foa, & Coles, 1998; Constans, Penn, Ihen, & Hope, 1999; Heinrichs & Hofmann, 2001;

[†]Correspondence to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nmi-gu, Bucheon, Korea; E-mail: psyclinic@catholic.ac.kr

Received Sep 11, 2017; Revised Oct 31, 2017; Accepted Oct 31, 2017

This paper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Kim, 2015).

Stopa & Clark, 2000). 특히 사회적 정보는 정서적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함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의 회피행동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이 반증될 기회를 놓치게 되어 과도한 불안이 지속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불안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Barlow, 2002; Hofmann & Barlow, 2002). 통제감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 및 사건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Chorpita & Barlow, 1998), 이에 취약성을 가진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신체 반응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Hofmann & Barlow, 2002). 국내 연구들에서도 불안장애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건을 통제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외부 상황에 대한 내적 통제감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Park, Yoon, & Kwon, 2011; Shin & Won, 1991; Yi, Oh, & Oh, 2003; Yoon, Park, & Choi, 2002), 지각된 불안 통제감이 아동기의 기질 및 환경과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불안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4; Oh, 2006; Yang & Kim, 2007). 즉 통제 가능성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에 따라 개인은 위협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행동보다는 회피행동이 증가되고 결국 사회불안이 지속,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정보의 위협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편향은 사회불안의 정보처리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석편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기술할 뿐, 그런 편향이 나타나는 발달경로나 과정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적다(Yang & Oh, 2010).

한편 해석편향과 사회불안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최근 연구들은 해석편향이 사회불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자 동시에 사회불안의 발달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해석에 대한 인지 편향 수정(Cognitive Bias Modification of Interpretation, CBM-I)은 훈련을 통해 해석편향이 수정되고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되어 불안의 인지행동치료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Beard & Amir, 2008; Mathews & Mackintosh, 2000; Murphy, Hirsch, Mathews, Smith, & Clark, 2007). 즉 사회불안의 발생이나 발달에 해석편향이 원인요인이 아닐지라도 유지요인이자 이를 수정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인지적 편향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편향과 관련되는 위협요인에 대하여 사회불안의 대표적인 기질적 취약성으로 알려져 있는 행동억제가 해석편향과 관련된다

는 선행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란, 처음 접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 사물 혹은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으로(Kagan, 1994; Mick & Telch, 1998),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기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에 사회불안 장애를 발달시킬 위험이 높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Biederman et al., 2001; 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Neal, Edelmann, & Glachan, 2002;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그러나 행동억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모두 사회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Biederman et al., 2001; Heo, 2006; Oh, 2006), 이는 행동억제만으로 사회불안의 발생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질적 특성과 인지적 요인의 상호관계 또는 불안 증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행동억제가 인지적 요인을 거쳐 사회불안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졌다(Kagan, 2008; Perez-Edgar et al., 2010; Viana & Gratz, 2012).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기질적 특성은 초기의 발달적 기원을 가지며(Kagan, 2008), 인지적 편향은 이후 발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제안된다(White, Helfinstein, & Fox, 2010).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에 따라 공변함으로써 불안장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불안을 유발하는 사건에 대해 심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불편감은 보다 쉽게 회상된다. 따라서 해석과 대처 능력에 대한 판단의 편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되고, 이는 결국 회피행동과 과도한 불안의 과정으로 이어진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이러한 인지적 편향에 대하여 주의편향이나 해석편향이 주목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불안 통제감, 역기능적 신념, 정서조절 전략, 경험회피 등의 인지적 요인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간의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가짐이 확인되었다(Choi & Cho, 2008; Kim, 2014; Oh, 2006; Yang & Kim, 2007). 즉 개인의 발달경로에서 행동억제의 기질적 특성이 해석편향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불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추론 가능하다.

또한 사회불안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있어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기여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Neal & Edelmann, 2003; Parker, 1979; Rapee, 1997).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모가 과잉보호하거나 통제했고, 보살핌이 적고 따뜻함이 부족한 양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하였다(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man, 1983; Parker, 1979, 1984).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사회불안의 직·간접적 관

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직접적인 경로보다는 다른 요인의 매개에 의한 간접경로가 존재함을 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따뜻함, 수용, 지각된 애정을 의미하는 돌봄(care) 차원과, 사생활 침입, 과잉통제,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보호(overprotection) 또는 통제(control) 차원으로 구분된다(Parker, 1979). 특히 부모의 통제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관련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도한 부모의 통제를 받은 아동은 모호하거나 비위협적인 상황을 보다 위협적으로 지각하며 대부분의 사건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느껴 불안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Chorpita & Barlow, 1998; Hudson & Rapee, 2004; Wood, 2006). 또한 불안의 기원에 대한 Barlow(2000, 2002)의 이론에 따르면 불안의 심리적 취약성은 일반적 심리적 취약성(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과 특정 심리적 취약성(specific psychological vulnerability)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심리적 취약성은 자극이나 상황 및 불안한 느낌에 대해 통제 불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부정적 양육과 불안 증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심리적 취약성은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불안을 느끼도록 학습된 취약성으로, 사회불안의 발달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위협한 것으로 지각하는 신념이 중요한 취약성 요인이 된다. Chorpita, Brown과 Barlow(1998)와 Spokas와 Heimberg(2008)는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환경이 아동의 외적 통제감을 발달시켜 불안증상을 야기한다고 보았고, Perez-Olivas 등(2008)은 주의편향이 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분리 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보았다. 모호한 사회적 상황 시나리오를 사용한 Affrunti와 Ginsburg (2012a, 2012b)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잉통제를 받은 아동들이 모호한 상황에 대해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불안의 수준이 더 높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과잉보호 혹은 통제는 자녀에게 환경을 위협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하게 하는 해석편향을 형성시켜 불안 발달에 기여한다고 보았다(Choi & Cho, 2008; Oh, 2006; Yang & Kim, 2007).

한편 돌봄 차원과 관련하여 거부적이거나 돌봄이 낮은 양육행동이 해석편향의 발달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부모가 거부적인 경우 아동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과도하게 각성되거나 민감하게 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기대 및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낮은 확신은 결국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Alessandri & Lewis, 1993; Workman, 2009). Gibb(2002)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고립되거나 거부적이고 무시하는 정서적 반응을 받는 경우 부정적 인지가 발달된다고 보았고, Workman(2009)의 연구에서는 모의 거부와 아동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해석편향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과보호 혹은 통제 차원이 해석편향 및 사회불안과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지만, 낮은 돌봄 또는 거부적인 양육행동 역시도 해석편향의 취약성 요인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양육행동을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해석편향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행동, 해석편향은 사회불안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해석편향은 행동억제 및 부모양육행동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불안에서 해석편향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하며,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의 구조적 관계에서 해석편향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서 해석편향이 나타나는 과정을 탐색하고,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이 해석편향을 통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 등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해석편향은 위협의 크기에 대한 편향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편향으로 구분하고, 부모양육행동의 차원도 돌봄 부족과 과보호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억제는 해석편향과 정적경로를, 해석편향은 사회불안과 정적경로를 보일 것이다. 둘째, 해석편향은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부모양육행동은 해석편향과 정적경로를, 해석편향은 사회불안과 정적경로를 보일 것이다. 넷째, 해석편향은 부모양육행동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Figure 1에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40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작성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377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남학생은 103명(27.3%), 여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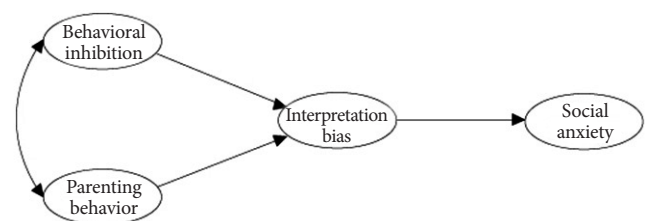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74명(72.7%)이었으며, 연령 평균은 남학생이 23.2세(표준편차 3.5), 여학생은 22.1세(표준편차 4.1)로, 만 18세에서 만 30세 사이가 95%를 차지하였다.

측정도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과 Clarke(1998)가 제작하였으며, 타인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성 혹은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 등에 대한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각 문항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지, 정서, 행동 반응을 기술하는 자기 진술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2이었다.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과 Clarke(1998)가 제작하였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 관찰되는 상황 및 사건 등을 기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겪는 주시불안, 혹은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행불안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K-RSRI)

Reznick, Hegeman, Kaufman, Wood와 Jacobs(1992)가 개발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기준으로 아동기의 행동억제를 경험의 정도 및 빈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Oh와 Yang(200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30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의 5가지 요인이 도출되었고, 내적합치도는 .7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85, 사회적 회피 .85, 수줍음 .83, 신체화 .69, 단순공포 .54, 분리불안 .70이었다. Oh와 Yang(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회피 요인은 신체화 요인 및 분리불안 요인과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행동억제의 다른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행동억제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다른 하위요인들은 서로 정적으로 관련되었지만 사회적 회피 요인은 신체화 요인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r = .07, p > .05$) 측정변인에서

제외시켰다.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척도(Korean version of Parental Bonding Instrument, K-PBI)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한 부모-자녀 결합 형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자녀의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ng(1992)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고, 부모 각각의 돌봄(care) 차원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과보호(overprotection) 차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간의 양육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연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 합산점수와 과보호 합산점수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Oh(2006)의 연구와 동일하게, 돌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돌봄 부족(lack of care)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돌봄 부족, 과보호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3, .90이었다.

해석편향 측정 시나리오

사회적 상황에서의 해석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Park, Hyun, Lee와 Lee(2007)가 개발한 실험글을 시나리오로 사용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대학생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불안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호작용 상황과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는 수행 상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상황 4개와 수행 상황 4개를 사용하였으며, 각 상황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느끼는 정도와 자신의 통제 가능성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때 통제 가능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합산하였으며, 자신이 상황을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위협의 크기 .75, 통제 불가능성 .81이었다.

절차 및 분석방법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3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전 소속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승인번호: 1040395-201502-02),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의에 의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에 포함된 연구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수업시간에 배포되고 수거되었으며, 총 407부 중 응답이 과도하게 누락되어 신뢰롭지 못하다고 판단된 30부를 제

외하고 총 37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 또는 하위 요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행동억제 및 부모양육행동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있어 해석편향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모형을 설계하고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 이때 1단계에서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 해석편향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완전매개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위의 매개모형을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검증하고자 하는데, χ^2 차이 검증(χ^2 difference test)의 경우 표본크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하여 모델을 쉽게 기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Hong,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χ^2 차이 검증과 함께 여러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비교 합치도(Comparative Fit Index, CFI)지수를 살펴보고, 제안모형과 대안모형 비교를 위해 모형의 간명도를 결합하여 측정된 비표준 합치도(Tucker-Lewis Index, TLI) 및 표준 합치도(Normed Fit Index, NFI)와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한 계략화 오차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Preacher와 Hayes(2008)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원자료에서 간접효과 데이터를 무작위로 여러 번 표집하여 통계 분포를 생성한 후, 측정값의 분포도와 신뢰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 크기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는 방

식이며,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1,000회)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의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고,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변인들의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편파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자료의 정상성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Hong, Malik과 Lee(2003)가 제시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2 < \text{왜도} < 4$, $-4 < \text{첨도} < 4$)을 적용하였을 때 본 연구의 모든 측정변인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 따르면 행동억제는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상호작용($r = .45, p < .01$) 및 사회공포($r = .47, p < .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해석편향의 하위요인인 위협의 크기($r = .43, p < .01$)와 통제 불가능성($r = .34, p < .01$)과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해석편향 중 위협의 크기는 사회적 상호작용($r = .59, p < .01$) 및 사회공포($r = .51, p < .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 불가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r = .34, p < .01$) 및 사회공포($r = .39, p < .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행동억제와 해석편향 및 사회불안 간에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행동 중 돌봄 부족은 사회적 상호작용($r = .30, p < .01$) 및 사회공포($r = .17, p < .01$)와 높지는 않지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위협의 크기($r = .24, p < .01$)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통제 불가능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07, p > .05$). 또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Latent variable	Variable	<i>M</i>	<i>SD</i>	Skewness	Kurtosis
Behavioral Inhibition (BI)		28.98	8.31	.74	.22
Parenting Behavior (PB)	Lack of Care	44.59	11.32	.56	.18
	Overprotection	47.95	11.68	.32	-.41
Interpretation Bias (IB)	Magnitude of Threat	14.75	5.27	-.43	.04
	Impossibility of Control	12.37	3.93	1.42	3.70
Social Anxiety (SA)	Social Interaction Anxiety	31.50	12.77	.28	.13
	Social Phobia	21.73	12.59	.47	-.20

Note. BI = 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PB = Korean version of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B = Scenario measuring Interpretation Bias; SA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 Social Phobia Scale.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Latent variable	Variable	1	2-1	2-2	3-1	3-2	4-1
BI	1. Behavioral Inhibition						
PB	2-1. Lack of Care	.15**					
	2-2. Overprotection	.22**	.52**				
IB	3-1. Magnitude of Threat	.43**	.24**	.23**			
	3-2. Impossibility of Control	.34**	.07	.24**	.34**		
SA	4-1. Social Interaction Anxiety	.45**	.30**	.32**	.59**	.34**	
	4-2. Social Phobia	.47**	.17**	.28**	.51**	.39**	.70**

Note. BI = 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PB = Korean version of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B = Scenario measuring Interpretation Bias; SA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 Social Phobia Scale.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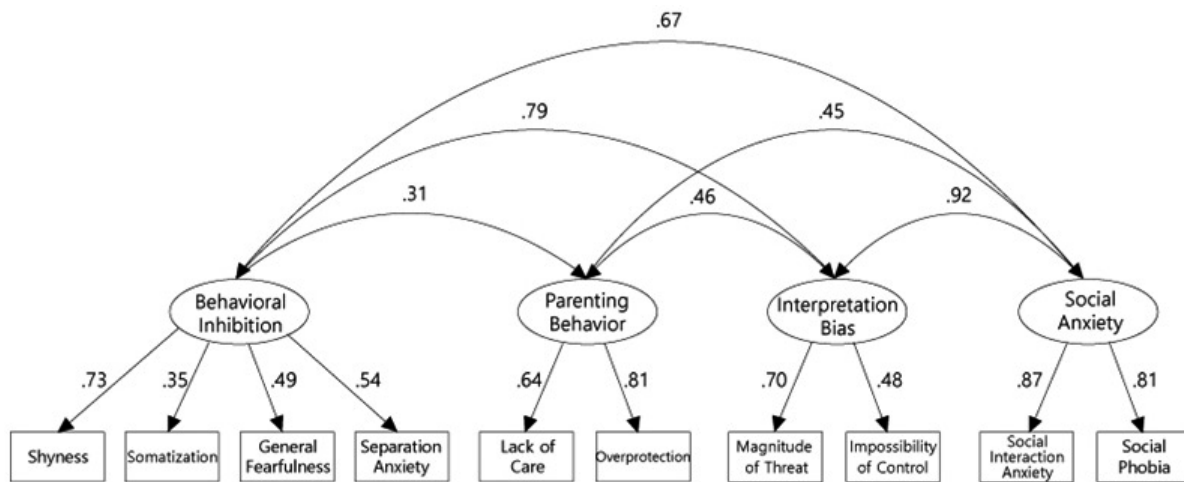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easurement model.

Table 3. The Fits of Models

Model	χ^2	df	p	CFI	TLI	NFI	RMSEA
Measurement model	86.77	29	.000	.938	.904	.911	.075
Full mediation model	87.76	31	.000	.939	.911	.910	.072
Partial mediation model	86.77	29	.000	.938	.904	.911	.075

과보호는 사회적 상호작용($r = .32, p < .01$) 및 사회공포($r = .28,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 위협의 크기($r = .23, p < .01$)와 통제 불가능성($r = .24, p < .01$)과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석편향의 하위요인인 위협의 크기와 통제 불가능성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r = .34, p < .01$)이 나타나 지각된 위협의 크기와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해석편향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제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은 Figure 2와 같고,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4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을 검증 하는데 10개 측정변인들이 선택되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Table 3에 따르면 측정모형은 CFI, TLI 및 NFI 값이 .90 이상이고, RMSEA가 .075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모형으로 수용되었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은 행동억제 및 부모양육행동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해석편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매개모형으로서 Figure 3과 같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듯이 $\chi^2 = 87.76(df = 31)$, CFI = .939, TLI = .911, NFI = .910, 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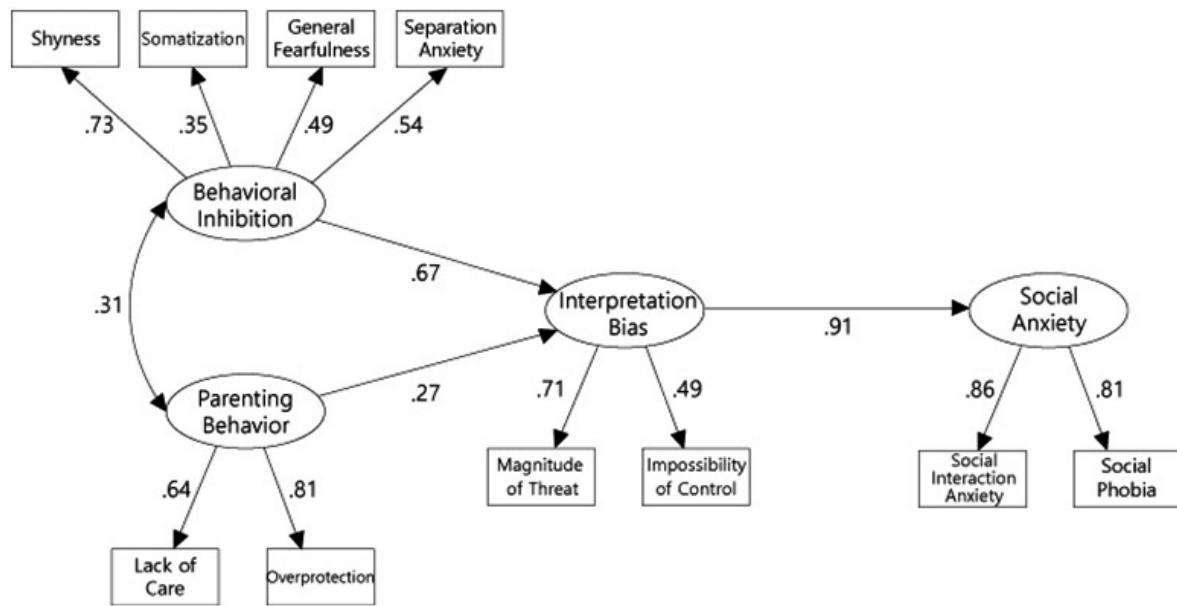


Figure 3. Research model: full mediation model.

Table 4. Path Estimate of Research Model

Path of variables	B	β	t
BI → IB	1.08	.67	5.71***
PB → IB	.07	.27	3.62***
IB → SA	4.87	.91	7.86***
BI → Shyness	3.17	.73	7.83***
BI → Somatization	.55	.35	5.07***
BI → General Fearfulness	.96	.49	6.53***
BI → Separation Anxiety	1	.54	-
PB → Lack of Care	1	.64	-
PB → Overprotection	1.30	.81	5.67***
IB → Magnitude of Threat	1.97	.71	8.04***
IB → Impossibility of Control	1	.49	-
SA → Social Interaction Anxiety	1.08	.86	15.31***
SA → Social Phobia	1	.81	-

Note. BI = 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PB = Korean version of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B = Scenario measuring Interpretation Bias; SA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 Social Phobia Scale.

*** $p < .001$.

SEA = .072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변인 간 경로계수를 보면, 행동억제가 해석편향에 이르는 경로계수와 부모양육행동이 해석편향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였고 해석편향이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계수 또한 유의하였다. 측정변인들과 이론변인 간의 경로계수와 t 검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해석편향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및 부모양육행동과 사회불안 간의 경로를 설정한 후, 경쟁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연구모형인 완전매

개모형과 비교하였다. 경쟁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간 차이 검증에 의하면, 두 모형의 χ^2 차이는 .99, 자유도 차이는 2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2만큼 감소했으나, χ^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의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완전매개모형의 경우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부분매개모형

에서는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beta = -.15, ns$)와 부모양육행동이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beta = .02, ns$)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과 경로의 유의성을 고려했을 때 완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하였고,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 각각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편향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연구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델로 판명되었고,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 및 사회불안의 관계를 해석편향이라는 매개변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변인을 경로모형에 첨가한 후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기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Seo, 2010). 부트스트래핑 절차는 매개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아도 되어 최근 매개효과 검증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구간 내에 0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한다. 즉 매개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행동억제가 해석편향을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매개효과 추정치는 .61로 유의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은 [.46, .7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해석편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행동억제가 강화되어 해석편향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이 해석편향을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매개효과 추정치는 .24로 유의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은 [.12, .3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해석편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잉보호하고 돌봄이 부족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해석편향과 관련되어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서 해석편향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 탐색하고,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이 해석편향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해석편향은 지각된 위협의 크기와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편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부모양육행동은 돌봄 부족과 과보호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불안에서 보이는 해석편향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결과, 행동억제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회불안 및 해석편향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행동억제는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동시에 해석편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경로도 가질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Kagan, 2008; Perez-Edgar et al., 2010). 또한 부모양육행동은 크게 돌봄과 과보호라는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인지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안되었다(Affrunti & Ginsburg, 2012a, 2012b; Alessandri & Lewis, 1993; Chorpita, Brown, & Barlow, 1998; Gibb, 2002; Perez-Olivas et al., 2008; Spokas & Heimberg, 2008; Workman, 2009).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불안은 행동억제, 부모양육행동, 해석편향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은 해석편향과도 정적 상관을 보여 이들 변인들 간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돌봄 부족과 과보호의 상관($r = .52, p < .01$)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양육에 대한 성인의 회고적 보고 및 아동의 관찰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모가 과잉보호하거나 통제했고, 보살핌이 적고 따뜻함이 부족한 양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하였다(Arrindell et al., 1983; Parker, 1979). 특히 Parker(1984)는 자녀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고 돌봄이 적은 양육방식을 애정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라고 정의하였는데, 애정없는 통제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었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한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한 아동의 부모들은 과제 수행 도중 자녀에게 따뜻함이 부족한 부정적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보다 개입을 많이 하는 통제적 행동을 보였다(Hudson & Rapee, 2001; Hummel & Gross, 2001; Moore, Whaley, & Sigman, 2004).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의 과보호 요인과 돌봄 부족 요인의 높은 상관 및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은 애정없는 통제가 사회불안과 관련된다는 기존의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양육행동과 해석편향의 관계에서 부모의 과보호는 통제 불가능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돌봄 부족은 통제 불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과잉보호와 통제가 심할수록 사회적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보살핌이 적고 거부적인 양육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통제감과 관련해서 어린 시절의 통제적인 양육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며(Chorpita & Barlow, 1998; Hudson & Rapee, 2004; Wood, 2006), 부모의 거부보다도 과도한 통제가 불안장애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들(Rapee, 1997; Work-

man, 2009)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해석편향을 위협의 크기와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적이 없기에, 향후 부모의 거부와 해석편향의 관련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구조 모형의 검증 결과 행동억제 기질은 해석편향을 완전매개로 하여 사회불안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행동억제는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행동억제 경향이 발달 과정에서 인지적 편향으로 이어져 사회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행동억제의 직접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Biederman et al., 2001; Kagan, 2008; Neal & Edelmann, 2003; Rapee & Spence, 2004; White, Helfinstein, & Fox, 2010).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매개변인들을 가정하고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직접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지만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고, 행동억제 기질이 안정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억제가 사회불안 발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대학생에서는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eo, 2006; Oh & Yang, 2003; Yang & Kim, 2007). 이에 대해 Oh와 Yang(2003)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기질적 취약성이 점차 극복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Heo(2006)는 행동억제 기질이 지능이나 대처전략 등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의 기질적 취약성이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사회적 정보를 위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을 통해 성인의 사회불안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지지한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해석편향을 완전매개로 하여 사회불안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돌봄이 적고 통제가 심할수록 사회적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며, 그 결과 사회불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와 돌봄 부족이 부정적 해석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부합한다(Affrunti & Ginsburg, 2012a, 2012b; Alessandri & Lewis, 1993; Workman, 2009).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행동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인지적 요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만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Choi & Cho, 2008; Heo, 2006; Oh, 2006; Yang & Kim,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돌봄이나 통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 자체보다는 이로써 생긴 해석편향 등의 인지적 요인이 사회불안 증상의 발달 및 유지에 있

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석편향의 두 측면인 지각된 위협의 크기와 통제 불가능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불안반응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Barlow, 1991, 2002; Hofmann & Barlow, 2002). 즉 통제 가능성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에 따라 개인은 위협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행동보다는 회피행동이 증가되고, 결국 사회불안이 지속,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현재 사회불안의 정보처리 이론에서 정보의 위협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해석 편향이 중요한 개념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두 요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적다. 또한 행동억제 및 부모양육행동과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 제 3의 요인으로 불안 통제감, 정서조절 전략, 역기능적 신념, 경험회피, 대처전략, 완벽주의 등 여러 인지적 요인들이 제안되었으나, 보다 기본적인 정보처리와 관련된 지각과 해석에서의 편향을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지각된 위협의 크기와 함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지각과 해석 및 행동반응의 결정까지 이어지는 정보처리의 체계적 과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 있어 지각된 위협의 크기가 클수록 이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해석편향을 다루는 추후의 연구에서 두 가지 차원이 모두 포함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 집단이나 사회불안의 임상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집단을 포함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며, 주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임상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들의 측정이 동일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과 같은 변인은 회고적 자기보고만을 통해 측정하였다. 회고적 연구에서는 아동기 경험에 대한 부정확한 회상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특히 사회불안은 정보처리의 편향과 관련되기에(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의 경우 아동기 경험이나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왜곡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억의 왜곡과 관련하여 Oh 등(2005)은 일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동기 경험에 대하여 본인 및 부모 간의 보고 일치도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비

교적 신뢰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찬가지로 Reznick 등(1992)의 연구에서도 행동억제를 비롯한 아동기 경험에 있어 참가자와 그 부모 간의 보고의 일치도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회고적 방법을 통해 아동기 시절의 행동억제 정도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적 보고의 신뢰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측정 방법으로 평가된 자료들을 포함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지만, 실제 상황에서의 반응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생태학적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상황이 불안을 충분히 유발하지 못하여 인지적 편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상황이 실제 불안을 유발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제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실험을 통해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불안의 치료적 개입에 관해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이 각각 해석편향을 완전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매개변인인 해석편향에 중점을 두고 치료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억제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Heo, 2006; Oh & Yang, 2003; Yang & Kim, 2007)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차별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질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의 경우,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지적 편향과 사회불안 증상의 발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 교육을 통해 환경적 요인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인지적 요인에 대한 개입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조절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실시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기에 인지적 요인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은 성인의 사회불안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석편향을 탐색하고 수정하는 것이 사회불안 치료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 증상의 치료 개입 시 인지적 편향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해석편향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CBM-I 프로그램은

컴퓨터 기반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정적인 해석편향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정보처리양식을 갖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둔 기법이다(Mathews & Mackintosh, 2000). 이때 단순히 모호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위협의 크기에 대한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히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면 결국 회피행동이 나타나 사회불안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의 치료 과정에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우선적으로 다룸으로써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행동의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불안의 인지행동치료에서 부정적인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더불어 통제감을 촉진시키는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데, 해석편향을 측정함에 있어 대부분 동일한 문장완성검사나 번안된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호작용 상황과 수행 상황을 포함하여 참가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실제 치료 장면에서도 개인이 처해 있는 특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 해석편향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의 효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Affrunti, N. W., & Ginsburg, G. S. (2012a). Exploring parental predictors of chil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child interpretation bias. *Child & Youth Care Forum, 41*, 517-527.
- Affrunti, N. W., & Ginsburg, G. S. (2012b). Maternal overcontrol and chil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competenc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3*, 102-112.
- Alessandri, S. M., & Lewis, M. (1993). Parental evaluation and its relation to shame and pride in young children. *Sex Roles, 29*, 335-34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th edition (DSM-5)*.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ir, N., Foa, E. B., & Coles, M. E. (1998).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945-957.
- Arrindell, W. A., Emmelkamp, P. M., Monsma, A., & Brillman, E.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etiology of phobic disorders: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183-187.
- Barlow, D. H. (2000). Unraveling the mysteries of anxiety and its

- dis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5, 1247-1263.
- Barlow, D. H. (2002).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2nd ed.). New York: Guilford.
- Beard, C., & Amir, N. (2008). A multi-session interpretation modification program: Changes in interpretation and social anxiety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1135-1141.
- Beck, A., Emery, G., & Greenberg, R.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Kagan, J., & Faraone, S. V.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673-1679.
- Bruce, S. E., Yonkers, K. A., Otto, M. W., Eisen, J. L., Weisberg, R. B., Pagano, M., Shea, T. M., & Keller, M. B. (2005). Influence of psychiatric comorbidity on recovery and recurrence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A 12-year prospective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1179-1187.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 3-21.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Choi, M. M., & Cho, Y. R. (2008, August). *The impacts of perceived parenting and behavioral inhibition on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beliefs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 Constans, J. I., Penn, D. L., Ihen, G. H., & Hope, D. A. (1999). Interpretive biases for ambiguous stimuli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643-651.
- Gibb, B. E. (2002). Childhoo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223-246.
- Hayward, C., Killen, J. D., Kraemer, H. C., & Taylor, C. B. (1998). Linking self-reporte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1308-1316.
- Heinrichs, N., & Hofmann, S. G. (2001). Information processing in social phobia: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751-770.
- Heo, J. H. (2006).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perfectionism, and traumatic experience on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 593-611.
- Hofmann, S. G., & Barlow, D. H. (2002). Social phobia (social anxiety disorder). In D. H. Barlow (Ed.),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2nd ed., [pp. 454-476]). New York: Guilford Pres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54.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 Hudson, J. L., & Rapee, R. M.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nxiety disorders: An observational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1411-1427.
- Hudson, J. L., & Rapee, R. M. (2004). From anxious temperament to disorder: An etiological model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pp. 51-74). New York: Guilford Press.
- Hummel, R. H., & Gross, A. M. (2001). Socially anxious children: An observational study of parent-child interaction.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23, 19-40.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New York: Basic Books.
- Kagan, J. (2008). Behavioral inhibition as a risk factor for psychopathology. In Beauchaine, T. & Hinshaw, S.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pp. 157-179). Hoboken, NJ: Jon Wiley & Sons, Inc.
- Kim, H. S. (2001). *Memory bias in subtypes of social phob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Y.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social anxiety symptoms: Mediating role of perceived anxiety control and experiential avoi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 Korea.
- Mathews, A., & Mackintosh, B. (2000). Induced emotional interpretation bias an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602-615.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Moore, P. S., Whaley, S. E., & Sigman, M. (2004).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mpacts of maternal and chil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471-476.
- Murphy, R., Hirsch, C. R., Mathews, A., Smith, K., & Clark, D. M. (2007). Facilitating a benign interpretation bias in a high socially

- anxious popul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1517-1529.
- Neal, J. A., & Edelmann, R. J. (2003).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Toward a developmental profi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761-786.
- Neal, J. A., Edelmann, R. J., & Glachan, M. (2002). Behavioral inhibition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s there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 361-374.
- Oh, K. J., & Yang, Y. R. (2003). Psychological mechanism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s I: Th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attitude and traumatic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557-576.
- Oh, Y. H. (2006). *Structural relation between social anxiety disorder and etiological correl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Oh, Y. H., Ahn, C. Y., & Oh, K. S. (2005).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677-692.
- Park, E. H., Yoon, H. Y., & Kwon, J. H. (2011). Assessment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impressions of social phobics in social interac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1, 53-73.
- Park, S. J., Hyun, M. H., Lee, J. H., & Lee, J. A. (2007). Social anxiety and interpretation bias of ambiguous social situation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95-110.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arker, G. (1984). The measurement of pathogenic parental style and its relevance to psychiatric disorder. *Social Psychiatry*, 19, 75-81.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rez-Edgar, K., Bar-Haim, Y., McDermott, J. M., Chronis-Tuscano, A., Pine, D. S., & Fox, N. A. (2010). Attention biases to threat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early childhood shape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Emotion*, 10, 349-357.
- Perez-Olivas, G., Stevenson, J., Hadwin, J. A. (2008). Do anxiety-related attentional biases mediate the link between maternal over involvement and separation anxiety in children? *Cognition and Emotion*, 22, 509-52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 879-891.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 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273-283.
- Rapee, R. M., & Spence, S. H. (2004).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Empirical evidence and an initi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737-767.
- Reznick, J. S., Hegeman, I. M., Kaufman, E. R., Woods, S. W., & Jacobs, M. (1992). Retrospective and concurrent self-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their relation to adult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301-321.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008-1015.
- Seo, Y. S.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 1147-1168.
- Shin, H. K., & Won, H. T. (1991). The comparative study of depressive group and anxious group in irrational beliefs and attributional sty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269-285.
- Song, J. Y. (1992).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 Evaluation of the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1, 979-992.
- Spokas, M., & Heimberg, R. G. (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social anxiety,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 543-551.
- Stopa, L., & Clark, D. M. (2000). Social phobia and interpretation of social ev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273-283.
- Viana, A. G., & Gratz, K. L. (2012). The role of anxiety sensitivity, behavioral inhibition, and cognitive biases in anxiety symptom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 1122-1141.
- Weems, C. F., & Silverman, W. K. (2006). An integrative model of contro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in childhood anxiet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1, 113-124.
- White, L. K., Helfinstein, S. M., & Fox, N. A. (2010). Tempera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and anxiety. In J. A. Hadwin & A. P. Field (Eds.),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and anxiet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233-252). Hoboken, NJ: Wiley-Blackwell.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73-87.
- Workman, J. O. (2009). *A cognitive-mediated model of child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Examining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 North Carolina, Greensboro, NC. Retrieved from NC Docks (<http://libres.uncg.edu/ir/listing.aspx?id=2463>).
- Yang, J. K., & Kim, E. J. (2007, August). *Development mechanism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Th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family environment, dysfunctional belief and anxiety contro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yeongju, Korea.
- Yang, J. W., & Oh, K. J. (2010). Interpretational bias of social and emotional stimuli in social anxiety.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0, 93-115.
- Yi, B. D., Oh, Y. H., & Oh, K. S. (2003). The effects of perceived anxiety control on social distress and avoidance of social phobia.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3, 81-92.
- Yoon, H. Y., Park, K. H., & Choi, Y. H. (2002). The influence of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on perceived locus of control-for social phobics and panic disorder patient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2, 15-27.

국문초록

사회불안의 해석편향에 미치는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영향

김수진·박기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서 해석편향이 나타나는 과정을 탐색하고,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이 해석편향을 통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377명(남 103명, 여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사회공포증 척도,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척도, 해석편향 측정 시나리오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해석편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부모양육행동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해석편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행동억제 및 부모양육행동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해석편향의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하였다. 행동억제 성향이 높고 부모의 돌봄이 부족하며 통제가 심할수록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해석편향이 증가할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사회불안, 해석편향, 행동억제, 부모양육행동

www.kci.go.kr